

# 전체 주제

##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분배

메시지 1 번과 2 번

### 우리의 누림과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

성경: 고후 13:14, 요일 1:2-7, 9, 계 22:1

- I.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고후 13:14) 이것은 우리의 누림과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이다.
- A.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환 혹은 전달이신 성령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생활에서 공급이 되신다.
  - B. 교회생활 전체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성하고도 영적인 순환을 묘사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달려 있다.
  - C.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제시된 신성한 삼일성의 내적 순환인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은 우리의 영적 맥박이다.
  - D.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그분 자신을 매일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 — 시 36:8-9.
- II.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 이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 렘 31:3.
- A.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요일 4:19)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요일 4:20-21).
  - B.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은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아 둔다. 그러니 생명을 선택해 그대와 그대의 씨가 살도록 하며,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께서 그대의 생명과 수명이시니”라고 말한다.
    - 1. 이 절들은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굳게 붙잡는 것임을 제시한다 — 신 30:19-20, 계 2:4, 7, 아 3:4, 8:13-14.
    - 2. 사도행전 11장 23절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지 제시한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갔을 때,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
      - a. 주님을 굳게 붙잡는 것은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다.
      - b.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며, 주님과 긴밀한 교통 가운데 사는 것이다.
  - C.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신성으로 풍성하게 된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된다.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넘치시는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인간 미덕들을 통해 표현되신다 — 고후 2:15.

- D.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인간 미덕들은 비범한 사랑, 끝없는 관용, 비할 데 없는 신실함, 절대적인 겸손, 최고의 순수함, 지고한 거룩함과 의, 우리의 빛남과 올바름을 포함한다. 이러한 미덕들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실지 생활을 묘사하며, 이 생명은 지금 우리의 내주하는 생명이 되 시어 우리가 이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며 표현할 수 있게 하신다 — 엡 4:20-21.
- E. 내주하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생활은 번제물로 예표된 예수님의 인간 생활의 재생산이 된다 — 레 1:4, 13.
- F. 우리는 모두 주님과 충분한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과 다정하고 내 밀하며 영적인 교통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본질로 채워짐으로써 주님께 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실 수 있고, 주님의 빛나는 요소로 채워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 — 아 1:1-4, 요 4:24, 눅 15:20, 마 5:15-16.
- G.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인성이 보호받는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영역과 범위 안에 지켜진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매혹됨으로 받게 되는 제한을 벗어 버리고 무슨 일이든 다 범할 수 있다 — 딤후 4:10, 14, 엡 4:17-21.

**Ⅲ.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이 은혜 안에 계속 서 있어야 한다. 이 은혜는 바로 우리의 누림이신 삼일 하나님이다 — 롬 5:2.**

- A. 매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 — 엡 1:6, 사 50:4-5, 아 8:13, 눅 4:22, 행 20:32, 엡 4:29.
- B.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생명의 은혜라는 내리는 이슬을 누림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점진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진정한 하나 안에 지켜야 한다 — 시 133편.

**Ⅳ.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내적 흐름인 성령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 이 교통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 고후 13:14, 민 6:22-27.**

- A. 교통은 신성한 생명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 이 교통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으로 묘사된다 — 계 22:1.
- B.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 6절과 7절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이라는 두 방면이 있음을 제시한다.
  - 1.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 a.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은 우리와 삼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리키며,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은 우리 믿는 이들 서로 간의 교통을 가리킨다.
- b. 사도들의 체험은 처음에는 수직적이었지만, 사도들이 신성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을 체험하게 되었다.
- 2. 요한일서 1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이다.
- 3.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라고 말한다. 이것은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이다.
- 4. 생명의 교통, 곧 생명의 내적 흐름은 기쁨을 낳고, 생명의 빛의 내적인 비춤 곧 내적인 다스림을 낳는다 — 요일 1:4-5, 요 1:4, 8:12, 비교 고후 5:13.
- C. 우리는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 1. 우리가 주님과 합당한 교통을 갖지 못한다면, 동료 믿는 이들과 교통을 갖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료 믿는 이들과 합당한 교통을 갖지 못한다면, 주님과 교통을 갖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바로 신성한 교통은 한 교통이기 때문이다 — 행 2:42.
  - 2. 우리가 실제로 이 교통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영 밖에, 삼일 하나님 밖에, 신성한 생명 밖에 있는 것이다 — 비교 고후 13:14, 고전 1:9, 빌 2:1.
  - 3. 우리는 동료 믿는 이들과 가능한 한 많은 교통을 갖기를 힘써야 한다. 이러한 신성한 교통은 우리를 교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형태를 빚어 주고 우리를 재조성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교통은 신성한 조성 성분을 우리의 영적 존재 안으로 가져와 우리 존재를 바꾼다.
- D. 수평적인 교통은 수직적인 교통과 함께 짜인다. 이렇게 짜인 교통이 참된 교통이다.
  - 1.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진정으로 서로 교통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접촉하게 된다. 이것은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이 서로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는지를 보여 준다.
  - 2. 우리가 성도들과 갖는 수평적인 교통은 우리를 주님과 수직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어 준다. 그다음 우리가 주님과 갖는 수직적인 교통은 우리를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어 준다.

**V.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모든 것이다. 우리는 교통이 사라질 때 하나님도 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교통으로서 임하신다.**

- A. 전류가 전기 자체이듯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곧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신성한 생명 자체이다.
- B.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생활이다. 결국 이러한 신성한 교통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짜이신다. 이렇게 함께 짜이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 C. 신성한 교통은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인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든다. 교통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공동 참여’를 의미하고, 이러한 공동 참여는 하나님을 산출한다.
- D. 사실상 교통은 바로 하나(oneness)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을 나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있을 때, 이러한 교통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온 우주 안에는 큰 하나가 있는데, 이 큰 하나가 신성한 교통이다.
- E.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하나이시듯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기를 갈망하신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22하절)라고

기도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확대된 하나이다(요 17:21상).

F.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의 실재이다.

1. 주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계 22:20)는 믿는 이들이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며 의견을 고집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신성한 교통 안에 제한받는 것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안에 보존되고 사역의 일은 계속 전진하게 된다. 모든 것을 살아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통이다 — 엡 4:11-12, 비교 겔 47:9.

G. 교통은 또한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어떤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신성한 교통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제쳐 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삼일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다 — 행 2:42, 요일 1:3, 고전 1:9, 3:6, 12.

H. 결국 교회와 신성한 삼일성은 교통 안에서 하나이다 — 요 14:21, 23.

VI. 우리는 신성한 교통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네 가지 긴요한 것, 곧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교통, 신성한 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영적 생명의 순환을 계속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은 우리를 신성한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계속 전진하게 하여, 결국 생명이 성숙하여 단체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한다 — 요일 1:1-9, 히 6:1, 엡 4:13.